

철도부지 이용 태양광 발전, 여의도 6배의 산림조성 효과

- 전국 16개소에서 연간 약 4만Mw 공급 예정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철도유휴부지와 철도시설 지붕을 활용, 올해 연말까지 전국 16개소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연간 약 4만M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본부는 현재 11개소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 중이며 12월까지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지붕, 광주승정역·정읍역·공주역 승강장 지붕, 동해남부선 신평항역 승강장 지붕 등 5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16개소에서 생산되는 4만Mw의 전력량은 약 1,1만여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으로 연간 약 800만t의 유류절감, 약 2.6만 톤의 CO2 감소, 여의도의 약 6배인 17백ha의 산림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본부는 철도부지 및 시설 사용료로 연간 약 6억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철도건설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채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 폐선 유휴부지, 차량기지 및 승강장의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현황>

지역	대상지	설치면적(㎡)	발전량(Mw)	사용료(백만원/년)	비고
총계 16개소		801,996	34.55	593	
철도시설(지붕) 5개소		16,635	1.55	37	
충청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1,444	0.1	2.5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847	0.06	1.5	
호남	호남고속철도 광주승정역	920	0.09	2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8,816	1.0	21	
영남	동해남부선 포항역	4,608	0.3	10	
유휴부지(폐선) 11개소		785,361	33	556	
강원	중앙선 고령~도담	17,527	0.4	10	
강원	중앙선 고령~도담	22,154	1	7	
영남	경전선 진주시	126,800	3.3	34	
강원	영동선 백산~동백산	31,179	1.6	36	
수도권	경원선 신탄리~백마고지	62,510	2.5	27	
수도권	중앙선 지평~양동	342,915	12	160	
호남	호남선 학교면 고막리·죽정리	37,066	2.5	50	
호남	호남선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7,200	0.5	10	
영남	경전선 김해	113,095	8	185	
영남	경산 안촌리	12,715	0.7	30	
강원	중앙선 영주댐 폐선	12,200	0.5	7	



동해남부선 '동부산관광단지' 건설 착수

- 내년 12월 완공예정,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 기대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부산시의 4계절 체류형 해양복합리조트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맞춰 동부산관광단지(가칭)를 12월 중 시공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동부산관광단지지역은 현재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송정역과 기장역 사이 기장군 기장을 당사리 일대에 위치하며 부산시가 사업비(163억원)를 전액부담하고 공단이 건설하는 수탁사업이다.

동부산관광단지지역은 숲(나무)과 파도의 개념을 반영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되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 등급을 반영한 선화역사(2,038㎡)로, 하루 3만 8천여명(2026년 기준)이 이용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동부산관광단지지역이 들어서면 부산시에서 시행중인 동부산관광단지의 철도접근성 향상 및 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 본격 추진!

- 지상2층 규모, 통합 환승체계 구축으로 교통혼잡 개선 효과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오산시의 분산된 교통체계를 한곳에 집중시키기 위한 '오산역 통합 환승센터(철도 및 도로) 구축 공사'를 지난 30일 입찰공고 했다.

*오산역 환승센터 : 경부선 오산역 인접, 지상 2층 규모의 환승센터(건축면적 4,578.56㎡)를 신설하는 공사

본부는 환승센터 건설공사 계약자가 11월에 선정될 예정으로 2017년 5월 '오산역 통합 환승센터'가 개통되면 인근지역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공사 위탁기관인 오산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시공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위 치 : 오산시 역광로 59(오산동) 일대
 사업기간 : 2012. 01 ~ 2017. 05 (실시설계기간 포함)
 사업량 : 오산역 앞 광장 및 환승센터
 [시설 총면적 12,591㎡(건축면적 4,578.56㎡)]
 - 지상 1층 : 시내 및 마을버스, 택시, 자가용, 자전거 등 환승
 - 지상 2층 : 전철, 국철, 시외 및 고속버스 등 환승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 본격 추진

- 내년 완공예정, 지상 3층 규모로 건설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공항철도 영종역사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난 30일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영종역 신축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내년 완공예정인 영종역 건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본부는 영종역사의 사업내용, 세부 추진사항 및 향후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공항철도 영종역은 지난해 5월 공단과 인천광역시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 동안 일부 사유지의 협의매수가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완료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부 관계자는 "역사 개통을 위한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영종역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치혁신(VE)을 사랑나눔으로 실천

- 'KR VE 경진대회' 시행 후 포상금 전액 복지관에 기부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철도 설계 및 시공분야의 가치혁신(이하 VE)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2014 KR VE 경진대회'를 개최해 토목 등 4개 분야에서 VE의 우수사례 및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고 포상금 전액을 대전시 소재 판암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VE (Value Engineering, 가치 엔지니어링) : 체계화된 업무프로세스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능정의와 다양한 분석 및 아이디어 창출 기법으로 최적의 대안을 창출하는 선진 기법



이번 VE 경진대회는 15개 팀에서 제출한 VE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작 3팀을 선발하였으며 열차운영계획 재검토로 정거장 규모 및 승강장 위치 조정·국도통과구간 형식 변경으로 678억원(전체 금액의 약 6%)의 사업비를 절감한 '포항~삼척 철도건설 노반 실시설계 VE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작으로 선발된 3개 팀에서 포상금을 전액 기부해 대전시 소재 사회복지관에 전달하는 등 철도건설 품질 향상 뿐 아니라 사랑나눔도 실천할 수 있었다.

공단의 'KR VE 경진대회'는 철도건설사업에 VE를 도입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회로 분야별 VE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철도건설사업의 가치향상 및 사업비 절감 기반 확대를 목표로 시행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원가절감, 성능향상 등 VE 효과와 수행내용의 충실성, VE 수행체계를 종합평가해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올해도 9월말까지 2,34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철도건설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창의적 발상으로 최적화된 설계 및 예산절감노력과 동시에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등 공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여주 철도건설 구간, 전기분야 공사 본격 추진!

- 2016년 상반기 개통,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후속공정인 전기분야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2016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전기분야 건설공사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기(25kV)를 공급하는 공사로서 총 49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철전원 1개 공구, 전차선 2개공구, 전력 1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한다.

성남~여주 철도건설 사업은 현재 공정을 62%로 선행 공정인 노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후속공정인 궤도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본부 관계자는 "2016년 상반기에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대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전기분야 신설 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성남~여주 복선전철 판교~곤지암여주 전기분야 신설공사 / 총사업비 : 1조9,157억원



구분	판교 ~ 곤지암	곤지암 ~ 여주
전철 전원	- 송전선로 4.86km - 변전소 1개소, 급전구분소 1개소, 급전보조구분소 4개소	
전 차 선	- 급전선 및 보호선 신설 102km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112km - 지지물 신설 2,760본	- 급전선 및 보호선 신설 131km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169km - 지지물 신설 2,229본
전 력	- 22.9kV 특고압 케이블 신설 358km - 22.9kV 개폐장치 및 배전반 신설 164면 - 터널등기구 신설 2,540개	
계약금액 (497억원)		
전철 전원		10,833백만원
전 차 선	10,187백만원	10,387백만원
전 력		18,251백만원